



©아세르 인트레이더, 2008 년 1 월 30 일

### 부흥(Revival)- 남은 자(Remnant)- 귀환(Return)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을 간단히 말하면 세 단어로 표현됩니다. 부흥, 남은 자, 그리고 귀환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세계 전역에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17(요엘 2:28) -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남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에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엘 2:32 -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 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로마서 11:5 -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1세기의 부흥은 단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은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부흥은 33년 오순절에 시작된 부흥의 완성입니다.

“귀환”이라는 것은 예수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첫 오순절 사건이 초림 직후에 있었던 것과 같이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0 - 주의 크고 영광로운 날이 오기 전에**

세계적 부흥은 이스라엘의 남겨진 유대 민족과 필연적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재림 때에 예수아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부흥-남은 자-재림”의 패턴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 8 -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아께서 주신 대위임대로 행하고자 하면, 대 부흥이 그 결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부흥은 이스라엘 내 메시아를 믿는 남은 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 국가로서 회복될 뿐 아니라, 영적인 나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그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위임(8절)과 이스라엘의 회복(6절)은 재림(11절)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11 -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아께서는 올리브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속 14:4). 예수아께서 초림 때 못박히셨던 바로 그 도시에서 재림 때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부흥- 남은 자- 귀환의 연결은 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적 성령의 역사와 추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7:9 -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믿는 남은 자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한 계시록 7:4 -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가 십 사만 사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무리와 도장을 받은 남은 자들이 결국 재림을 맞습니다.

**요한 계시록 19:11 -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잡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부흥- 남은 자- 귀환의 패턴은 로마서 11장, 에베소서 2장, 이사야 40~66장, 에스더서, 룻기 등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집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재림을 위한 “이중 선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해져야 끝이 임하는 것입니다(마 24:14).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송축합니다(마 23:39)”라며 예수아를 맞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그 분의 오심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적 패턴은 올바른 해석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역에 있어 실제적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저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론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이 곳 이스라엘 땅에 자생

적 교회가 개척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우주적 교회가 무장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이 왕국의 사도로서 전세계로 보냄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사 2:2~4, 42:6, 49:6). 수년간,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세계 부흥에 대한 관심 없이 “남은 자”에 대한 설교만을 해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부흥”에 대한 환상을 보지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예수아의 재림을 향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사도적”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건너 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닉 유대 공동체가 세계의 부흥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간과하도록 두시지 않을 것도 믿습니다. 주께서는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서로에게 접붙이고 계십니다(스가랴 14:9, 에베소서 1:10).

번역- 고병현